

美 '北 테러지원국' 표현 완화

보고서 '명단'엔 포함... 지정사유는 대폭 축소 2·13합의 이행 유도, 핵 불능화엔 해제절차

■미 테러보고서 북한 관련 부분 비교

구분	작년보고서	올해 보고서
북한의 테러지원 활동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유 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북한은 2003년에 생존납북자 5명, 2004년에 대부분 어린이인 8명 납북자가족의 일본귀환을 허용했다. 다른 납북자들의 운명에 대한 문제가 일본과 북한간 진행중인 협상의 주제로 남아 있다. 11월에 북한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밝힌 두 명의 일본인 유해를 일본에 송환했다. 그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송환된 5명의 납북자 등 북한정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12명의 일본인의 운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국인 납북자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485 명이 납치됐거나 억류됐다고 추정한다.	삭 제
다른나라 납북자	다른나라 국민들이 해외 곳곳에서 납치됐다는 믿을 만한 보도가 있다.	삭 제
적군파 보호	4명의 일본 적군파 요원이 1970년 제트기 납치에 개입한 뒤 북한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1970년 제트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 적군파 요원을 계속 보호하고 있다.
2·13합의 언급	미 언급	2007년 2월 13일 초기조지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30일 북한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6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 6자회담 및 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근거를 설명하면서 작년 보고서에서 포함했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 납북여류인사 및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하고 일본인 납북자에 관련한 기술내용도 상당 정도 축약했다.

미국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1970년 제트기(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소속 요원 4명을 보호하고 있다"

며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송환된 5명 납북자 등 북한 정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설명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쳐오던 미국이 일단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잔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엔 미국이 아시아 최대 우방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에게 '2·13 합의'를 이행토록 압박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잔류시키되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 근거를 상당 정도 줄이고 수정한 것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향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미 국무부의 테러보고서는 1년에 한번 발표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춘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데보라 진 팰프리가 지난달 30일 법정에 출두한 뒤 가진 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 혐의가 기각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만여명의 고객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美 정가 'D.C.마담' 공포

매춘업자 "명단 폭로하겠다" 룬에 이름이 공개돼 지난주말 전격 사임한 랜들 토비아스 국제개발처(USAID) 차장급 가족, 친지들에겐 미안하지만 자신에 대한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 한 더 많은 고객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팰프리는 자신이 고객 명단을 밝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측이 기각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만여명의 고객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거둬 위협했다.

워싱턴 시내에서 13년간 고급 매춘업소 '팔메라 마틴 앤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해온 팰프리는 매춘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입증될 경우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팰프리는 이날 법정에 출두한 뒤 언론에 "DC 마담" 공포가 워싱턴 정가에 확산되고 있다.

'DC 마담'으로 불리는 전직 매춘업자 데보라 진 팰프리(50)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예비 심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한 뒤 자신에 대한 불법 혐의가 기각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만여명의 고객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거둬 위협했다.

워싱턴 시내에서 13년간 고급 매춘업소 '팔메라 마틴 앤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해온 팰프리는 매춘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입증될 경우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팰프리는 이날 법정에 출두한 뒤 언론에 "DC 마담" 공포는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美, 한인 납북자 문제 왜 뺐나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북한을 재차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도 지정사유에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06 테러보고서'에는 작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 납북여류인사 및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출신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됐다.

당국자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

2·13 합의 이행 의지 표시로 해석

식적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테러 지원국 지정사유에서 빼 줄 것을 미측에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 납북자와 관련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해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차피 2·13 합의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포함된 만큼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측의 정치적 의지

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사유의 변동이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달리 한국인 납북자 문제는 남북간 채널에 의해 미약하나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정 사유에서 빠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가족·친구 가치는 年 1억5천만원 고통스런 이혼은 빛 2억5천만원

英 경제학자들 계산

친구와 가족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매일 친구와 가족을 보는 것을 값으로 따지면 연봉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800만원) 인상에 상응한다고 계산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옆집 사람과 자주 수다를 떨 수 있다면 이것도 연봉 3만7천파운드(약 6천900만원) 인상에 준하는 기쁨을 준다. 결혼은 결혼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후에도 5만파운드(약 9천300만원) 연봉을 더 받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고통스런 이혼은 13만9천파운드(약 2억5천800만원)의 빛을 지는 것 같은 부담을 안긴다.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실제로 인한 수입 상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14만3천파운드(약 2억6천600만원)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준다.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전과 같은 생활의 만족도를 여전히 유지하려면 최소한 연간 48만파운드(약 8억9천100만원)의 돈을 필요로 한다.

학술지 사회경제학 저널에 이 보고서를 발표한 런던대 교육연구소의 나타부드 포우드사비 박사는 영국 내 8천가구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연말-연합뉴스



중 인민해방군과 소녀

홍콩의 대(對) 중국 반환 10주년을 2개월 앞둔 1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기지에서 노동절이 지나고 개방의 날을 맞아 부모와 함께 이 기지를 방문한 한 소녀가 군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방학 위를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알카에다, 고어 암살·핵무기 획득 기도"

테넷 전 CIA국장 회고록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알 고어 전 미 부통령 등 요인 암살 외에 핵무기 획득을 통해 9·11 테러를 능가하는 대형 테러도 계획했다고 미국 MSNBC 방송이 조지 테넷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회고록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 달 27일 출간된 테넷 전 국장의 회고록 '폭풍의 한복판에서'(At the Center of the Storm)에서 알-카에다 및 이 조직과 연계된 다른 단체들이 9·11 테러와 유사하거나 훨씬 규모가 큰 테러를 계획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취소되거나 미 당국에

의해 저지됐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알-카에다가 고어 전 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대전차 미사일로 암살하거나 뉴욕 지하철에 독극물인 청산가리(시안화물) 가스를 살포하고, 파키스탄의 핵과학자로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구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회고록에는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가을 뉴욕을 겨냥해 소행 핵무기가 국내로 밀수됐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내용의 정보가 여러 통로를 통해 접수됐으며 당시 에너지부는 뉴욕에 검출장비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돼 있다.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안주류)

출장뷔페 예약상담 ☎. (062) 262-2278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메이카 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 0505-313-1515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인만큼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사는 아닙니다. 이번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감사진! TESOL박사 토익만점 11회 토익 분석 전문가 열강! 역강! 최 갑 원장 조성훈 교수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술의 거리 행복관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